

석사학위논문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 태 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순 임

2000년 8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순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0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양 순 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서지능 형성에 알맞은 가정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정서지능과 관련지어 자녀의 성장, 발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정의 일반배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부의 종교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모의 종교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모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성취-비성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0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2-2. 개방-폐쇄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친애-거부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자율-타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도내 초등학교 6학년 270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 검사지와 정서지능 검사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자녀들의 타인의 정서인식능력이 높다.

둘째,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자녀들의 정서표현 능력이 높다.

셋째,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다.

넷째, 성취적인 가정환경에 있을 때가 비성취적인 환경에 있을 때보다 타인의 정서인식, 감정이입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다.

다섯째, 친애적인 가정환경에 있을 때가 거부적인 환경에 있을 때보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그리고 정서활용 능력이 높다.

여섯째, 자율적인 가정환경에 있을 때가 타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보다 자신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그리고 정서활용 능력이 높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의 정서지능을 높여 행복한 삶,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보다 성취적이고 친애적이고 자

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내용을 심화, 확대하여 성별, 학년별 그리고 가정의 구조변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셋째, 가정환경 뿐 아니라 학교환경, 사회환경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있어 가정 및 부모의 역할과 영향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4
1. 가정환경의 개념과 하위요인	4
2. 가정의 심리적 환경	7
3. 정서지능의 개념과 하위요인	10
4. 가정환경과 정서지능간의 관계	21
III.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과 일반배경	26
2. 측정도구	26
3. 자료처리	28
IV. 결과 및 해석	29
1. 가설 1의 검증	29
2. 가설 2의 검증	33
V. 요약 및 결론	38
1. 요약	38
2. 결론	40
3. 제언	41
참고문헌	42
Abstract	47
부 록	51



표 목 차

<표 III-1> 일반배경에 대한 기초자료	28
<표 III-2> 심리적 환경의 측정요인에 대한 문항번호와 신뢰도	29
<표 III-3> 정서지능의 측정요소에 대한 문항번호와 신뢰도	30
<표 IV-1> 부의 종교 유무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32
<표 IV-2> 모의 종교유무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33
<표 IV-3> 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34
<표 IV-4>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35
<표 IV-5> 성취-비성취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36
<표 IV-6> 개방-폐쇄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37
<표 IV-7> 친애-거부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38
<표 IV-8> 자율-타율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40



부 록

가정환경 검사지 1	52
가정환경 검사지 2	53
정서지능 검사지	58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빠른 변화와 복잡성의 특징을 드러내며 무한경쟁의 시대로 가는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합리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면에 가치관의 혼란, 이기심, 무기력, 가출,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은 여전히 지식편중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간성을 상실케 하고 인간의 도덕적 가치 생활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문제 행동들을 유발시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더구나 핵가족의 보편화 경향과 자녀 수의 격감으로 아동들이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 있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러므로 점차 인간의 상호이해와 자기이해의 측면인 정서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Goleman, 1995).

특히 인간의 정서적 특성은 초기 아동기에 형성되며, 그들의 정서적 특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체는 부모(Kernberg, 1976)로서 자녀가 정서를 식별하고, 명명하며, 존중하고, 그 정서를 사회적 상황에 연결시키는 것을 부모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서 기술들의 학습은 훌륭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김창대, 1997).

더구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추세인 현대에 들어와 가족구성원의 정서적인 안정과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한 가정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EQ(Emotional Quotient)라는 용어가 성공과 행복은 정서 지능이 좌우한다는 말과 함께 정서적 능력 시대를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이는 IQ를 우선시해 온 맹목적인 잘못된 관행에 대한 대안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며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남의 감정을 배려하며 인내심을 갖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으로 청소년 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진이 밝힌 연구에서 정서적으로 성숙성을 갖춘 정서 지능이 높은 부모에게서 양육받은 아이들은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정서 지능이 낮은 부모를 가진 아이들에 비해 부모와의 사이가 좋고 많은 애정을 보이며 서로의 관계에 대한 갈등도 적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혼란스러울 때 스스로를 효율적으로 진정시킬 뿐 아니라 혼란을 느끼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하였다(Goleman, 1995).

인간의 능력에 대한 연구의 역사를 보면, 영향력있는 지능 연구자들조차도 성공적인 삶에 대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인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Thorndike의 사회적 지능, Sternberg의 사회적 능력, Gardner의 개인내적 지능과 대인적 지능 등의 개념이 이에 속한다(Goleman, 1995). Salovey와 Mayer(1990)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지능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들은 정서지능을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여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 정서 및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정서지능이 보다 보편적인 관심거리로 등장된 것은 Goleman(1995)에 의해서이다. 그는 정서지능을 정서의 자각, 정서의 관리, 자기동기화, 공감능력, 대인관계기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정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어서 정의하기도 힘들고, 따라서 측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과제라 연구의 어려움이 있지만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의 정당성을 이론정보다는 현실적 유용성에서 더 크게 찾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그들이 주장하는 정서지능의 중요성과 가치는 그 개념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모순없이 체계성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보다는 얼마나 현실적으로 인간의 정서적 및 사회적 적응을 잘 도와줄 수

있느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병래, 1997).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정서지능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지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가정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일반배경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정의 일반배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부의 종교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모의 종교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모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성취-비성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개방-폐쇄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친애-거부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자율-타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가정환경과 정서지능을 살펴본 후 가정환경과 정서지능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가정환경의 개념과 하위요인

가정환경은 개인의 성격은 물론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신분석학적 연구는 물론이고 그 외 많은 연구가 인격형성에 있어 초기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자녀교육방식 등이 아동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경험은 대부분이 학교나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가정환경의 개념과 그 하위변인을 살펴보겠다.

사전에 의하면, 환경이란 생물체를 둘러싸고 그것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외계라고 규정되어 있고, English(1958)의 심리학사전에서는 “유기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외적 조건과 요인의 총합”이라고 되어있다(정원식, 1993).

Good(1959)에 의하면 환경은 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을 통해 그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대상, 힘, 조건을 말하며, 거기에는 내적환경과 외적 환경이 있다고 하였다.

Bloom(1964)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조건, 힘 및 외적 자극”이라고 하여

역시 외적 조건의 전체를 환경이라는 개념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Lewin(1936)은 $B=f(P,E)$ 라는 행동공식을 제시하면서 환경을 물리적 환경(비심리적 세계)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고,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개인과 그를 둘러싼 심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환경이란 단순히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외계가 아니고 개인의 행동에 직접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과 발달은 언제나 환경속에서 이루어지고,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동일한 환경이라도 그 환경이 개인의 행동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것이다(조은미, 1992).

Freud는 '영·유아기에 있어 부모의 양육방법이 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여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보다 가정환경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이 매우 큰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정원식, 1993).

가정은 개체에게는 최초의 교육의 장이며, 성격형성에 미치는 바가 크다. 즉, 개체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그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아동의 생활환경은 가정이 중심이 된다. 그 개인에 있어서 기초적인 여러 가지 습관과 지식을 획득하고, 최초의 사회생활을 통해 성격의 기초를 닦는 것이다. 이 때에 아동의 최초의 학습은 주로 주위의 자극에 대한 모방으로 비판없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가정환경의 영향이 대단히 크고 깊은 것이다.

가정환경의 구성은 학자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달리 나뉘어지나 일반적으로 가정의 문화시설, 가족구성원, 집의 크기등 물리적 환경과 가족상호간의 태도, 분위기등의 심리적인 환경으로 구분된다(정원식, 1993).

황정규(1964)는 물리적 환경을 거주지, 가옥, 문화시설, 경제생활, 학습시설 등을 들었고 심리적 환경으로는 가족, 교육관계 집안분위기, 가족 생활 등을 들었다.

김광웅(1973)은 아동과 환경과의 상호형태에 따라 물리적 환경은 눈에 보이는 상호작용관계, 즉 물질이나 금전을 투자하여야만 일어날 수 있는 관계라고 하였으며 심리적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관계, 즉 물질과 금전의 투자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관계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원식(1993)은 가정환경의 구성을 명백하게 물리적, 심리적 환경으로 양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래의 물리적 환경변인 일부를 조정하여 지위환경으로, 심리적 측면에 해당하는 변인과 물리적 측면의 일부변인을 구조환경으로, 순전히 심리적 환경으로 볼 수 있는 변인을 과정환경으로 재분류하여 개념화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원식의 가정환경 요인에 따라 상호관계를 밝히고자 하므로 그의 가정환경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의 지위환경은 물리적 환경으로 양친의 상태, 거주지의 생태적 환경, 가족 구성, 가옥상황 등이 이에 해당되며 구조환경은 외적 조건과 자극의 조직화된 체제로서 문화적 상태, 영양 및 위생상태, 생활공간, 언어모형, 강화체제, 가치지향성, 학습체제, 집단특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정환경은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조건이나 자극과의 상호작용으로 성취-비성취,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가 해당된다.

가정환경의 지위변인은 물리적인 환경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부모의 교육수준, 문화시설 등과 관련된 환경을 말한다. 이 지위변인은 부모의 양육방법과 태도에 차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적발달과 성격형성, 자아개념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Kingley(1940)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IQ와의 상관을 연구한 결과 환경수준이 높은 자녀들이 낮은 수준의 자녀들에 비해 높은 IQ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이지웅(1993)은 가정환경의 지위변인이 높은 집단의 아동이 낮은 집단의 아동보다 더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Binnet와 Tumin(1959)에 의하면, 중류층과 하류층 사이에는 각각 그 집

단 나름의 사회과정과 문화형태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화 되어가는 형태와 성격 형성의 형태가 각기 다르다고 하였으며, 이규환(1978)은 하류층 자녀들의 인간관계가 중,상류층 자녀들의 대인관계에 비해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McClelland(1962)는 중류층의 가정은 계층상승을 위해서 노력하는 계층이므로 성취지향적이며 또한 모든 생활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기대도 성취면에 강조를 둔다. 그러나 하류층의 가정은 그들의 생계유지에 바빠 계층 상승을 위한 기회를 거의 상실하고 성취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녀는 방임상태에 있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수용적이지 않고 매질과 같은 체벌을 자주 가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Tobby(1969)에 의하면, 가정의 낮은 경제적 지위는 낮은 지적 수준을 가져오게 하고, 낮은 지적 수준은 학교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갖게 하여, 거칠고 자극적인 행동을 유인하며, 불량한 친구와 사귀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정환경의 지위변인은 개인의 지적, 정서적 발달 또는 성격 형성과 자아개념의 발달과 성취의욕에 영향을 주는 기초적이며 배경적인 환경로서 작용하고 있다(조은미, 1992)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일반배경으로서 부모의 종교유무, 모의 직업유무, 출생 순위를 제시한다.

2. 가정의 심리적 환경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으로서 지위변인이 간접적으로 성격형성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정의 심리적 환경인 과정변인은 개인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작용을 한다.

Baldwin(1948)의 연구에 의하면,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는 가정에서 성장된 아동은 사회성, 지도성 그리고 책임감이 높고 독립적이며, 학업성취에 우수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엄격히 통제된 가정에서 성장된 아동은 복종적, 의존적이며 권위주의적, 비협조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Symonds(1949)는 이상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거부적-보호적, 지배적-복종적이 아니고 또한 극단적으로 보호적, 거부적이 아닌 그 중간의 원점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하였다.

Clausen(1966)은 가정의 공동목표에 동조하고 있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으며 융합된 가정일 때 아동의 사회적 적응력이 일찍부터 길러지며 후에도 현실수용력이 발달되고 협동성이 강화되며, 만일 가족성원에 협동하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에게 갈등과 불만을 주게되며 결과적으로 비사회적 특성이 육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가족내의 구성원 상호간에 자율성을 허용하고 장려하면서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민주적 가정인가 아니면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가정인가에 따라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개념화한 여러 학자들의 모형이 있다. 그 중에서 Symonds(1937)는 양친의 양육태도의 기본 요인으로 거부적-수용적, 지배적-복종적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Baldwin(1948) 등은 여러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과 가족원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심리적 분위기를 온화, 익애 대 거부, 민주 대 전체, 경쟁의식, 활동성 등의 다섯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행동과학연구소(1973)에서는 성취동기를 위한 압력, 언어발달을 위한 압력, 정의적 지원 등을 심리적 환경의 내용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가정환경의 과정변인은 순수한 심리적 환경으로 정원식

(1993)의 가정환경 요인에 따라 성취-비성취, 자율-타율, 개방-폐쇄, 친애-거부가 이에 해당하며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성취-비성취’는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스스로 달성하기를 격려 요구하며, 항상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를 권장하고 박력과 끈기, 주의력을 집중시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성향을 말한다.

‘자율 타율’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며, 권위나 윗사람의 결정에 무조건 동조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성향을 말한다.

‘개방-폐쇄’는 주위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하며, 미지의 사태에 과감히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하는 성향을 말한다.

‘친애-거부’는 가족의 구성원이 서로 접촉하기를 원하며, 서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기대하는 성향을 말한다.



이러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법과 가족생활의 분위기를 결정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조은미, 1992).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발달은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며, 한 단계의 정상적인 발달에 의해서 다음 단계의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어렸을 때의 가정환경의 지위변인과 과정변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인 지위변인과 심리적 환경인 과정변인의 두 측면에서 가정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정서지능의 개념과 하위요인

인간의 정서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정서에 지능을 부여하는 시도는 수년간 강력하게 IQ이론을 옹호해 왔던 사람들조차 ‘정서’와 ‘지능’을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지능 영역내에 정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인간의 성공, 건강, 행복 등에 정서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정서지능 개념과 하위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정서지능 개념

옛부터 인간의 정신을 이성(사고)과 감정(정서)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이분법적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 서양철학에서는 감정이란 혼란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과 이성은 양립할 수 없는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와같은 감정 또는 정서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Platon과 Aristoteles의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17C Descartes에 의해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정서란 동물정신의 흐름과 같은 것으로서 이성적 개입과는 판이한 본능적, 선천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와는 달리 정서를 적응적으로 유용한 생물학적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19C 후반부터 등장되었다. William James(1884)는 정서에 관한 최초의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그는 정서자극에 의해 내장기나 근육에 먼저 반응이 일어나고 이어서 이 반응이 대뇌피질에 전달됨으로 정서경험을 하게 된다는 견해를 제안하였다.

또한 Leeper(1965)는 정서가 행동에 부적응적, 비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재래의 견해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정서는 모든 행동을 조정하고 동기화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는 동기적 기능뿐 아니라 인지적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정보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Le Doux(1996)는 우리의 뇌는 두려움이란 의식적인 공포를 느끼기 이전에 이미 위협성을 알아차릴 수 있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반응을 선도할 수 있을 만큼 정서뇌는 이성의 뇌 못지 않게 인간 생활의 많은 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였다(장현갑, 1997. 재인용).

1920-30년대 Thorndike는 지능 영역내에 정서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지능은 IQ의 한 측면이 될 수 있음을 발표하였고, Sternberg도 사회적 지능이란 학문적 능력과 다른 것으로 삶의 실제적 문제들을 사람들이 훌륭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는 Sternberg, Gardner, Salovey 등에 의해 확대된 지능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연구 결과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Goleman(1995)이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EQ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성격, 정서, 인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서는 특히 1980년 이후 다시 활발한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세기 초까지 정서는 감정(affect, feeling)과 동일한 것으로, 또는 혼동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정서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 정서가 갖는 강한 주관적 경험 가운데 하나는 행위 충동으로서 환경과

의 특정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행위 충동 또는 동인 요소는 정서란 단어의 어원적 근원에 내포되어 있다. 즉 라틴어로 <e>는 <밖으로>란 뜻이며 <movere>는 <움직이다>는 뜻이다. 밖으로 움직이려면 우선 주위에 자극 존재가 있어야 가능하며, 또 이렇게 움직이는 반응 행위를 하는 유기체의 조건이 고려되어야 했다. 따라서 심리학의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정서를 유기체, 환경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며, 이에 기초한 정서 이론과 연구방법도 달라지게 된다(김경희, 1997). 정서에 대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학자들간에 무엇이 필요 조건이고 무엇이 충분 조건인지에 대한 일치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인 학업 적성 중심의 IQ개념을 탈피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능이론들이 다수 출현하였는데, 그 이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위적인 검사상황에서 벗어나 실세계에서의 능력을 중시하고, 지능개념의 내용을 종래의 협소한 학업 적성에서 사회적 지능, 창의성, 예술적 재능 등으로 확장시키며, 지능연구에서 인지적 기능외에 정의적이고 동기적인 기능을 포함시켜 '상황속에서 발휘되는 정신(mind in context)'의 개념으로 지능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경향이다.

1920-30년대 Thorndike는 사회적 지능을 타인에 대한 민감성과 인간관계에서 현명하게 행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능력이 필수적인 인간의 능력이라 주장하였다.

Sternberg(1992)는 지금까지 종래 지능검사의 대안으로 제안되었던 검사 방법들의 여러 가지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래의 검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지능의 요소분석적인(과정적인) 면, 지능의 창의적인 면, 지능의 실제적인 면, 학생의 사고양식과 학습 양식에 대한 사정이라고 제안하였다(하대현, 1997. 재인용).

Gardner(1983)는 정서가 지적기능을 갖는다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언어능력, 논리능력, 공간이해능력, 운동능력, 음악능력, 개인간(interpersonal)능력, 개인내(intrapersonal)능력과 같은 7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다지능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 요인들 가운데 개인간 능력과 개인내 능력을 합쳐 개인(personal)능력이라 불렀는데 이 능력들은 전통적인 IQ검사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요인으로 정서적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하대현, 1997. 재인용).

보다 구체적으로 “정서지능”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경우는 Salovey와 Mayer(1990)에 의해서인데 그들은 정서지능 역시 지능으로 보았다. 정서지능은 성격과 같은 개인의 일반적인 성향이나 행동선호도 또는 사회적 기술을 의미할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정신적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서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일반지능과는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의 개념은 정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능력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술 차원에서가 아니라 여러 개인들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보고 있다(이병래, 1997).

그런데 현재 정서지능에 대한 많은 오해가 발생했다.

첫째, IQ보다 EQ가 현실세계에서의 성공을 더 잘 예언한다는 주장이다. 지능이 그들 성공에 대한 예언력이 기대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EQ보다 그 상대적 예언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현재 최소한 논쟁중이거나 그와는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 EQ가 IQ‘보다’ 사회적 성공을 더 많이 설명한다는 해석보다는 IQ의 설명을 ‘보완’한다라는 해석이 더 타당할 것이다.

둘째, EQ개념의 과포함성이다. Goleman은 EQ개념이 회사 경영자, 교사, 연구자, 부부, 상담치료가 등에 모두 유용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설

명하기 위해 자기-인식, 자기-통제, 공감, '자아몰입(flow)', 인지적 귀인,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기술 등의 개념을 빌려왔다. 그러나 그 개념의 많은 것들은 사회적 및 동기적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 그 영역에서 철저하게 연구되고, 잘 알려진 개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EQ의 개념을 독특한 것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셋째, EQ개념의 측정에 대한 문제이다. Goleman은 자신의 저서에서 “아직까지 EQ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필검사는 개발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면서도 10문항짜리 EQ검사를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스스로 채점하고 해석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검사는 심리측정학 관점에서 문제가 야기됨은 말할 나위가 없고, 그 측정치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심각하다(하대현, 1997).

이러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즉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서가 개인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잠재적으로 보다 풍부한 경험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Mowrer, 1960; Leeper, 1965), 인지적 활동을 적응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한다(Isen, 1984; Salovey & Mayer, 1990; Bodenhausen, 1993). 또한 정서지능은 사회적 기술과는 달리 자신과 타인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정신적 능력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능력에 따라 개인을 변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서지능은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는 타당한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능의 성격을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협의의 의미로 정의한다면 정서지능은 모순이 되지만, Wechsler(1958)처럼 '적응'을 강조하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한다면 정서지능은 연구 가능한 주제가 될 수 있다(이병래, 1997).

2)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Salovey & Mayer(1990)는 정서지능을 크게 정서의 평가와 표현, 정서의 조절 및 정서의 활용으로 3분하였으며 이 3대요인 밑에 각각 몇몇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정서와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후에 나온 정의에서는 정서지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즉, 정서지능이란 “정서를 정확하게 지각하여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 정서 및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수정된 정의를 제안했다(Salovey & Mayer, 1996).

한편 Goleman(1995)은 앞서 언급한 Gardner 견해와 Salovey & Mayer의 견해를 포함시켜 정서지능을 5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정서의 인식능력, 둘째는 정서의 관리능력, 셋째는 자신의 감정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넷째는 타인의 정서를 정확히 인지하여 공감할 줄 아는 능력, 다섯째는 인간관계를 잘 할 줄 아는 사회적 기술 능력이다. 이 5가지 요인중 자각능력은 Gardner가 언급한 개인내 능력과 유사하며, 공감 능력과 인간관계능력은 개인간 능력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의 하위요소는 정서인식 능력, 정서표현 능력, 정서조절 능력, 감정이입 능력, 정서활용 능력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서인식 능력이다. 이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제대로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 인식의 과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서 중추의 반응을 언어중추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정서 하나 하나 상태를 확인해 가는 심리적 과정이다. 이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살펴 나가는 자기 관찰은 비록 감정의 홍수속에 있더라도

도 자기의 감정을 독립적으로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분과 이 기분에 따라 생각하게 된다는 것 두 가지를 안다.”는 것이라고 Mayer(1990)는 말한다. 자기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살피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린 후 이 감정을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정서지능이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보다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에 반응할 수 있으며 그 감정을 타인에게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이런 사람은 “나는 나의 감정에 대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런 감정표현 장애는 병적인 것으로서 정서 중추인 변연계와 언어 중추인 신피질 사이의 신경회로가 끊어진 경우에 잘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정서반응이 일어나는 변연계로부터 언어중추에 정보를 보내 주어야 감정을 표현할 것인데 이 회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서의 언어표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장현갑, 1997).

이러한 정서인식 능력 속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게 아는 능력도 포함된다.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릴 때에는 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비언어적인 측면, 예를 들어 목소리나 말투, 표정 등의 단서를 놓치지 않고 이 단서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도 포함된다.

정서인식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다른 능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차종환(1997)은 정서생활을 가꾸어 나가는 데 필요한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첫째는 감정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둘째는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감성적 신호들에 주목하는 것(감성적 신호들에는 근육긴장, 두통, 위경련 등과 같은 신체적 징후와 주의산만, 흥분, 과민 등과 같은 인식적 징후들이 있다.), 셋째는 그 신호들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구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의 깊은 자기 관찰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행위동기와 자신에게 미치는 주위의 영향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대체로 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 느끼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고 정돈할 수 있다.

둘째는 정서 표현 능력이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줄 알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정서 표현의 목적은 정서의 억압이 아니라 정서의 균형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고 느꼈을 때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을 말한다(차종환, 1997).

회노애락의 감정의 바다 속에 살되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서양의 지혜에서 동일하게 가르치는 말이다. 요컨대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해 가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취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서 상태가 극단적으로 변화되거나 심한 정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심리적 안정성이 파괴된다. 유쾌한 감정이나 행복감과 같은 좋은 정서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정서도 때로는 삶을 의미있게 하고 마음을 평정해 주는 데 양호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강력한 부정적 감정에 아무런 조절없이 휩쓸려가지 못하게 하면서 가능한 긍정적인 기분으로 바꾸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장현갑, 1997).

차종환(1997)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첫째, 마음을 가라앉

하기. 둘째, 감정을 차단 또는 몰아내기. 셋째,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를 제시하였다. 즉, 자신의 감정반응을 적절히 조절하고 즐거움이나 분노와 같은 일차적인 감정 상태로부터 유발되기 쉬운 직설적인 행동을 유머나 방어법과 같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교양있는 행동양식을 통해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감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얼마나 교양있게 감정을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정서 지능의 역할이다. 정서의 자기 조건이 미숙한 태도는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 특히 성장해서 대인관계 기술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 적용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적절한 정서 표현 능력은 개인 생활이나 공동체적인 삶 자체를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셋째는 정서조절 능력이다.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어떤 장애물이나 난관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어떤 분야에 있어 최고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훈련과 실천을 통해 어떤 어려운 일이나 따분한 일이라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도전하면 성공한다는 굳은 신념과 낙천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정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사고와 계획수립, 목표 추구나 문제 해결의 능력을 높이는 데 유익하게 작용한다. 또한 정서는 내적 정신 능력을 활용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정서는 열정적이고 즐겁게 일하고 생활해 나가도록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정서지능은 우리의 능력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잠재울 수도 있다(장현갑, 1997).

Mayer와 Salovey(1990)는 정서조절 능력에는 크게 두 가지 능력이 포함

된다고 하였다. 즉, 나쁜 기분을 억제하여 좋은 기분 상태로 전환하고 좋은 기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기분을 향상시키고 정서를 조절하여 가치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능력이 그것이다. 전자의 능력을 ‘자신의 정서조절’이라고 하며, 후자의 능력을 ‘타인의 정서조절’이라고 한다. 정서조절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매우 잘 다스리고 타인의 정서도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어 장차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조절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성공적인 사회인인 될 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넷째는 감정어입 능력이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읽을 줄 아는 공감능력을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 할수록 남의 감정도 잘 읽을 수 있다. 공감능력이 높으면 타인의 필요성이나 욕구를 잘 헤아리고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인기있고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감정 표현은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 목소리의 음조나 억양, 얼굴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언어적 감정 표현을 읽을 줄 아는 능력에 관한 연구가 Robert Rosenthal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비언어적 감성 프로파일(profile of nonverbal sensitivity: PONS)이라는 공감 검사를 개발하였다. PONS검사는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이 담겨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피험자에게 보여주면서 각각의 표정이 어떤 정서 상태인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얼굴은 볼 수 있게 하였으나 신체는 볼 수 없도록 하였고, 또 어떤 경우엔 얼굴은 볼 수 없고 신체만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평정자는 비언어적 표정의 각 장면에 대해 정서를 판단해야 했다.

PONS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비언어적 표정자극에 대한 감정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적응력이 높았고, 인기가 있었으며, 사교성과

감수성이 풍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감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앞섰다.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PONS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학생들은 동료로부터 인기가 있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IQ가 높지 않더라도 학교성적이 우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공감력의 발달은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타심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심리학적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남을 괴롭히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극히 잔인한 사람들은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의 하나는 모두 공감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것처럼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정종진, 1997).

공감능력이 두뇌의 기능에 근거한다는 증거가 많다. 뇌의 우측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환자를 관찰해 보거나 원숭이의 뇌 수술 실험을 한 결과 특히 우측전두엽과 편도핵이 손상당했을 때 감정 교류에 장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발견되었다.

지적인 능력이 단어나 언어에 의해 측정되어지는 것처럼 정서능력은 비언어적인 것에 의해 측정되어 질 수 있다.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정서적 메시지 90%이상이 비언어적인 형태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 이입은 상대에게 집중하여 경청하려는 자세, 말로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까지도 파악하려는 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차종환, 1997).

다섯째는 정서활용 능력이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이용해서 생산적인 활

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사고, 추리, 문제해결, 창의적 과제 등에서 적응적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정서는 어떤 종류의 문제해결에서는 보다 더 적응적인 정신태세를 창출한다. 즉, 사람이 인식하는 문제의 종류와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은 내적인 정서경험과 더 많이 관련된다. 정서지능이 우수한 사람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신의 정서와 기분을 보다 잘 적응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요소에 대한 초기 개념 모형에서 Mayer와 Salovey(1990)는 융통성있는 계획세우기, 창의적 사고, 주의 전환, 동기화에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정서적 융통성은 다양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용이하게 한다. 긍정적인 정서는 인지적 자료가 보다 잘 통합되고 다양한 생각들이 보다 잘 관련될 수 있도록 기억조직을 바꿔준다. 이것이 정서적 창조성이다. 또한 정서적 주의집중을 통해 정서는 복잡한 체계를 중지시키고, 주어진 수준의 처리과정에서 벗어나 보다 절박한 욕구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예를 들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기분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다. 마지막으로 정서와 기분은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동기화시키고 보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4. 가정환경과 정서지능간의 관계

가정은 정서지능에 관한 최초이자 최고로 중요한 학습의 장이다. 이 친밀한 배움터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을 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희망과 공포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런 정서지능의 학습은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부부간에 교환되는 감정들을 다룰 때 사용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래서 어떤 부모들은 뛰어난 정서지능 교사가 되는가 하면, 어떤 부모들은 잔혹한 교사가 되기도 한다. 즉 부부가 그들간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과 자녀들과 직접 상호작용할 때의 방식 모두를 자녀들은 빠짐없이 배우게 되는 것이고, 가족간의 아주 사소한 감정 교환에도 과장을 맞추는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홍명희, 1997).

특히 아동은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반응에 의해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감지한다.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삶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저마다 한 가정안에서 자라면서 가정의 갖가지 면모와 감정적인 분위기뿐 아니라 휘트먼이 말한 대로 다른 가정이 아닌 우리 가정에서만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관습, 언어’에도 익숙해져 있다. 이처럼 인간은 특정한 정서적 환경에서 성장하며 그 환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나무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과 태양과 바람과 비에 의해 모양이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들의 태도들에 의해 형성된 분위기가 우리 자신의 정서적인 발달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친다(W. Hugh Missildine, 1994).

정서세계는 생후 일년동안에 결정적으로 형성된다. 자기신뢰, 자기억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된 마음, 감정이입하는 능력, 타인과의 교제 능력등은 이미 가정을 통해 아이에게 형성되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이런 요소들이 자라면서 정서계발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 기초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부모 스스로가 그들의 정서생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영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서지능이 높은 부모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정서교육을 수행한다(홍명희, 1997).

성격형성의 결정적 시기가 생후 6개월에서 2년 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때 어머니가 불안해한다거나 자기를 보살펴 주는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

하면 이것이 바로 어린이의 공감적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안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는 불안하게 될 것이며 온화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는 온화한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편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정서가 그들 주변의 어른들에 의해 인정받고 강화된다면 표현하는 정서는 습관으로 굳어질 것이지만 반대로 인정받거나 강화받지 못한다면 정서의 표현을 멈출 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표현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남을 사랑하고 인정할 줄 아는데 비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표정이 어둡고 표현하지도 않고 남을 사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장현갑, 1997).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감정이입은 분노와 공포, 슬픔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물학적인 기본 요소에 속한다. 감정이입을 통해 우리가 표출하는 행위들 대부분은 자신의 교양과 주변의 문화적인 환경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아이의 신호에 예민하고도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아기는 배고픔, 갈증, 지루함, 축축한 기저귀, 피곤함, 복통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울음을 통해서인데 이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느냐는 부모의 감정이입 능력에 달려 있다. 부모가 아기의 소망과 욕구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아이는 여러 가지 감정을 서로 구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즉, 감정이입의 발달은 부모가 아이의 느낌과 일치점을 찾는데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아이가 감정 표현을 할 때 지나친 반응을 보이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경우, 아이는 어리둥절해하면서 근심에 잠기게 된다. 감정이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모의 아이는 훗날 대부분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홍명희, 1997).

Watson(1961)은 부모의 수용적 가정환경일 때 자녀들은 협동심과 사회성을 보다 잘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교우간에 있어서도 상호

친절해질 수 있으며 독립적이며 자발심을 갖도록 한다. 이와 반대로 엄격한 양육 방법은 자녀들에게 적개심을 일으키게 하고 비협동적이며 사회성에 결함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Erickson(1963)에 의하면, 인간이 태어나 이 세상에 대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죄의식이나 수치심과 같은 정서의 기반은 학령기 이전에 형성된다. Bowlby나 Kernberg(1976)등에 의하면 초기 아동기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경험, 특히 애착관계의 형성과 독립적인 정체성의 확립과 관련된 경험, 주요 대상으로서의 부모의 반응은 초기 아동기 이전에 속한 자녀의 정서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쳐, 그 때 형성된 정서적 패턴과 틀은 그의 일생을 좌우할 정도다(김창대, 1997. 재인용).

강영일(1982)은 불안형의 아버지를 가진 남자아이는 충동성과 지배성이 높은 반면 안정성이 낮으며 여자아이는 사회성이 높다고 하였고, 불일치형 부모를 가진 남아에게는 충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아에게는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며, 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감정을 조절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놀이문화와 가족 행사를 통해 다양한 정서 체험을 하게 될 때 아이는 두뇌의 정서회로가 안정되고 발달된다(문용린, 1997).

Davidson(1994)은 아동이 반복해서 겪는 정서적 행위의 습관들은 정서두뇌 조절회로에 영속적인 연결체계를 형성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무관심하며 무시와 학대, 잔혹한 훈육 등을 하면 정서회로에 강력한 흔적을 남겨 정서 능력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부모가 자녀의 욕구에 믿을 만한 태도를 보이며 아이가 자신의 고통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거나 감정이입 실행을 위한 기회와 안내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Mayer와 Salovey(1997)는 정서지능과 관련된 기술 중 최소한 몇 가지는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자녀가 정서를 식별하고, 명명하고, 존중하고, 그 정서를 사회적 상황에 연결시키는 것을 부모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서 기술들의 학습은 훌륭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하대현, 1997. 재인용).

오영미(1997)는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민주·자율적, 기대·간섭적, 온정적으로 지각할 때 아동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인숙(1997)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부모-자녀간의 대화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개방적일 때 자녀의 정서지능을 가장 많이 발달한다고 했다.

이병래(1997)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모두가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심리적 자세 유형을 가지고 있을 때 유아의 정서지능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숙자(1998)는 아동의 가정환경과 정서지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가정환경 요인 중 가족상호태도와 성취, 응결력, 친애, 자율, 사회상승요인은 감성지능 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물질 지향과 역할기대 요인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박정주(1998)는 형제 수가 많을수록, 자신이 가정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맞벌이 가정의 아동보다는 어머니가 가정에 있으면서 보살피는 가정의 아동들이 의미있게 정서지능이 높다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가정은 가소성이 가장 강한 어린이들이 속해있는 1차적 집단으로써 인간관계가 애정으로 얽혀 있으므로 가정환경은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임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상호간에 애정과 신뢰로써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정서지능을 높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Ⅲ.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연구대상과 일반배경, 측정도구, 자료처리 순으로 제시한다.

1. 연구대상과 일반배경

본 연구는 제주시내 N초등학교 6학년 아동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회수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였다. 기초 자료로서 일반배경을 제시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일반배경에 대한 기초자료

구분	유(N)	무(N)	
부의 종교	192	78	
모의 종교	220	50	
어머니의 직업	169	101	
출생순위	첫째(N)	둘째(N)	셋째(N)
	125	37	108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가정환경 검사지와 정서지능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1) 가정환경검사

가정의 일반배경은 연구자 임의로 부모의 종교, 어머니의 직업유무, 출생순위로 한정하여 검사지를 자작하였고, 심리적 환경에 대한 검사지는 정원식(1970)의 '가정환경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표 III-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자율-타율, 친애-거부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채점 방법은 '그렇다'에 3점, '보통이다'에 2점, '아니다'에 1점을 부여하였고, 그 반대의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III-2> 심리적 환경의 측정요인에 대한 문항번호와 신뢰도

측정요인	문 항 번 호	신뢰도 (α)
성취-비성취	1, 5, 9, 13, 17, 21, 25, 29, 33, 37, 41, 45 (12문항)	.72
자율-타율	2, 6, 10, 15, 18, 22, 26, 31, 32, 40, 44, 48 (12문항)	.71
개방-폐쇄	3, 7, 14, 16, 24, 30, 34, 35, 38, 39, 42, 46 (12문항)	.70
친애-거부	4, 8, 11, 12, 19, 20, 23, 27, 28, 36, 43, 47 (12문항)	.81

2) 정서지능 검사

아직까지 정서지능 전체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가 전혀 없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정서지능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서지능 검사가 전체 능력 측정이 아니라 하위요소별 검사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검사도구는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7)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했다.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문항 내적 합치도를 통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와 측정요소에 대한 문항 번호는 <표 III-3>과 같다.

문항 1-22번, 25-28번, 31-34번은 세 개의 평정척도로 되어 있어 ‘항상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①, ‘가끔 그런 편이다’는 ②, ‘그렇지 않다’와 ‘아무렇지 않다’는 ③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23-24번, 29-30번, 35-37번은 선택형으로 되어 있다. 정서지능 수준 채점은 정서인식 문항, 감정이입 문항, 정서조절 문항인 경우는 ①은 2점, ②는 1점, ③은 0점이고, 정서표현 문항인 경우는 ①은 0점, ②는 1점, ③은 2점이고, 정서활용 문항인 경우는 ①은 2점, ②는 0점으로 하였다. 이 점수를 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표 III-3> 정서지능의 측정요소에 대한 문항번호와 신뢰도

측정요소		문항번호	신뢰도
정서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4, 5, 6, 7, 8	.77
	타인의 정서인식	1, 2	
정서표현		3, 10, 11, 12, 17, 18	.68
감정이입		9, 13, 14, 15, 16, 19, 20	.71
정서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21, 22, 25, 26, 27	.83
	타인의 정서조절	28, 31, 32, 33, 34	
정서활용		23, 24, 29, 30, 35, 36, 37	.70

3. 자료처리

가정의 지위, 과정환경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후 각 요인별로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변량분석하였다. 유의도는 $p < .05$, $p < .01$ 두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가설 1의 검증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 가설에 기초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정의 일반배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부의 종교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부의 종교 유무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표 IV-1> 부의 종교 유무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구 분		유		무		F
		N	$\bar{X}(SD)$	N	$\bar{X}(SD)$	
정서 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189	8.23(2.01)	78	8.01(2.20)	0.65
	타인의 정서인식	191	2.62(1.01)	78	2.32(0.94)	5.12*
정서표현		191	8.14(2.24)	73	8.19(2.13)	0.02
감정이입		189	8.09(2.54)	76	8.17(2.55)	0.04
정서 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189	5.69(1.86)	75	5.41(1.95)	1.22
	타인의 정서조절	187	6.90(1.97)	76	6.42(2.14)	3.14
정서활용		189	7.88(3.74)	77	7.63(3.98)	0.23

* : $p < .05$

<표 I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종교유무에 따라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5.12, p<.05$). 즉 아버지가 종교를 가질 때($\bar{X}=2.62$)가 그렇지 않을 때($\bar{X}=2.32$)보다 타인의 정서인식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타인의 정서인식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의 종교유무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조영권(1995)이 연구한 아버지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의 책임감, 정직성, 정서안정이 종교가 없는 경우의 자녀보다 월등히 높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다르다.

1-2. 모의 종교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모의 종교 유무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표 IV-2> 모의 종교유무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구 분		유		무		F
		N	$\bar{X}(SD)$	N	$\bar{X}(SD)$	
정서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217	8.22(2.05)	50	7.96(2.14)	0.64
	타인의 정서인식	219	2.54(1.02)	50	2.48(0.88)	0.18
정서표현		218	8.09(2.22)	46	8.47(2.12)	1.16
감정이입		216	8.24(2.57)	49	7.57(2.35)	2.77
정서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216	5.67(1.83)	48	5.35(2.11)	1.14
	타인의 정서조절	215	6.79(2.03)	48	6.64(2.03)	0.21
정서활용		217	7.84(3.78)	49	7.67(3.94)	0.07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종교유무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종교유

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가설에 반하는 것으로 가설 1-2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가설 1-3. 모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표 IV-3> 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구 분		유		무		F
		N	$\bar{X}(SD)$	N	$\bar{X}(SD)$	
정서 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168	8.24(2.16)	99	8.05(1.91)	0.54
	타인의 정서인식	168	2.54(0.96)	101	2.51(1.06)	0.06
정서표현		166	8.36(2.17)	98	7.80(2.22)	4.02*
감정이입		166	8.18(2.45)	99	8.00(2.70)	0.33
정서 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167	5.71(1.88)	97	5.45(1.89)	1.15
	타인의 정서조절	164	6.73(2.07)	99	6.82(1.96)	0.13
정서활용		166	7.62(3.86)	100	8.12(3.71)	1.04

* : $p < .05$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 중 정서표현 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4.02, p<.05$). 즉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bar{X}=8.36$)가 그렇지 않을 때($\bar{X}=7.80$)보다 정서표현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표현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아동의 정서지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4.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표 IV-4>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구 분		첫째		둘째		막내		F
		N	$\bar{X}(SD)$	N	$\bar{X}(SD)$	N	$\bar{X}(SD)$	
정서 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124	8.05(2.17)	37	8.27(2.11)	106	8.27(1.94)	0.36
	타인의 정서인식	125	2.64(0.97)	36	2.47(1.08)	108	2.43(1.00)	1.29
정서표현		122	8.09(2.17)	37	8.72(1.93)	105	8.03(2.32)	1.45
감정이입		122	8.25(2.63)	37	8.35(2.48)	106	7.87(2.46)	0.80
정서 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124	5.68(1.93)	37	5.54(1.92)	103	5.56(1.82)	0.15
	타인의 정서조절	122	7.18(2.03)	37	6.94(1.99)	104	6.22(1.93)	6.70**
정서활용		123	8.08(3.96)	36	8.00(3.38)	107	7.43(3.76)	0.86

* : $p < .05$ ** : $p < .01$

<표 IV-4>에 의하면 출생순위가 아동의 정서지능 중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70, p < .01$).

즉, 정서조절 능력이 첫째($\bar{X}=7.18$), 둘째($\bar{X}=6.94$), 셋째($\bar{X}=6.2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옥형 외 2인(1993)의 연구에서 밝힌 아동의 출생순위 및 형제간의 애정이나 갈등, 경쟁의식 등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지한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가정의 과정보다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성취-비성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성취-비성취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표 IV-5> 성취-비성취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구 분		성취		비성취		F
		N	$\bar{X}(SD)$	N	$\bar{X}(SD)$	
정서 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74	8.47(1.88)	70	7.78(2.30)	3.86
	타인의 정서인식	73	2.86(0.93)	70	2.30(1.04)	11.62**
정서표현		74	8.16(2.18)	68	8.26(2.18)	0.07
감정이입		73	8.65(2.89)	70	7.35(2.37)	8.56**
정서 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74	6.13(1.80)	69	5.14(2.03)	9.54**
	타인의 정서조절	71	7.36(1.93)	69	6.18(1.94)	12.85**
정서활용		74	7.70(4.06)	69	7.04(3.73)	1.01

** : $p < .01$

<표 IV-5>에 의하면 성취-비성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인식의 경우 성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11.34$)가 비성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10.0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8.48, p < .01$). 특히 타인의 정서인식 능력이 비성취환경인 경우($\bar{X}=2.30$)보다 성취환경에 있을 때($\bar{X}=2.86$) 더욱 그러하다($F=11.62, p < .01$).

감정이입의 경우, 성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8.65$)가 비성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7.3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8.56, p < .01$).

정서조절의 경우, 성취적인 환경에 있을 때($X=14.71$)가 비성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12.5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12.40, p<.01$).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성취적인 환경에 있을 때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F=9.54, p<.01, F=12.85, p<.01$).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가족이 서로 격려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는 성취적인 환경일수록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 개방-폐쇄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개방-폐쇄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표 IV-6> 개방-폐쇄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구 분		개방		폐쇄		F
		N	$\bar{X}(SD)$	N	$\bar{X}(SD)$	
정서 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99	8.46(1.85)	45	7.93(2.02)	2.39
	타인의 정서인식	100	2.64(1.04)	46	2.43(0.91)	1.30
정서표현		98	8.53(2.51)	45	7.73(1.72)	3.70
감정이입		99	8.16(2.44)	45	8.48(2.86)	0.49
정서 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98	5.62(1.96)	45	5.97(2.10)	0.96
	타인의 정서조절	98	6.97(1.92)	43	6.79(2.20)	0.26
정서활용		98	7.91(3.96)	44	7.40(3.69)	0.52

<표 IV-6>에 의하면 개방-폐쇄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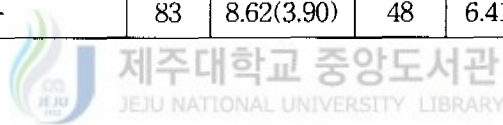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개방-폐쇄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가설에 반하는 것으로 가설 2-2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2-3. 친애-거부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친애-거부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표 IV-7> 친애-거부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구 분		친애		거부		F
		N	$\bar{X}(SD)$	N	$\bar{X}(SD)$	
정서 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85	8.67(1.89)	49	7.46(2.38)	10.33**
	타인의 정서인식	85	2.75(1.01)	50	2.28(0.94)	7.21**
정서표현		84	8.77(2.27)	50	7.40(1.96)	12.58**
감정이입		85	8.84(2.25)	48	7.16(3.04)	13.16**
정서 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83	6.27(1.81)	50	4.98(1.84)	15.78**
	타인의 정서조절	84	7.64(1.96)	49	6.10(2.07)	18.23**
정서활용		83	8.62(3.90)	48	6.41(3.97)	9.62**



** : $p < .01$

<표 IV-7>에 의하면 친애-거부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하위요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인식의 경우 친애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11.42$)가 거부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9.7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14.08, p < .01$). 즉 가정환경이 친애적일 수록 자신의 정서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표현의 경우 친애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8.77$)가 거부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7.4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12.58, p < .01$).

감정이입의 경우 친애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8.84$)가 거부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7.1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13.16, p < .01$).

정서조절 역시 친애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15.36$)가 거부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12.0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27.22, p<.01$). 즉 가정환경이 친애적일수록 자신의 정서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활용의 경우도 친애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8.62$)가 거부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6.4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9.62, p<.01$).

즉 가족의 구성원이 서로 접촉하기를 원하며 서로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기대하는 친애적인 가정환경에서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 능력이 더 발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4. 자율-타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자율-타율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표 IV-8> 자율-타율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 차이

구 분		자율		타율		F
		N	$\bar{X}(SD)$	N	$\bar{X}(SD)$	
정서 인식	자신의 정서인식	99	8.66(1.82)	39	7.64(2.07)	8.18**
	타인의 정서인식	89	2.70(1.03)	40	2.60(0.87)	0.33
정서표현		99	8.68(2.09)	38	7.28(2.09)	12.24**
감정이입		99	8.55(2.07)	40	7.37(3.40)	6.22*
정서 조절	자신의 정서조절	97	5.97(1.71)	40	5.10(2.15)	6.37*
	타인의 정서조절	98	7.32(1.90)	38	6.39(2.29)	5.80*
정서활용		98	8.69(3.71)	39	6.20(4.09)	11.81**

* : $p<.05$ ** : $p<.01$

<표 IV-8>에 의하면 자율-타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인식의 경우 자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11.39$)가 타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10.2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6.43, p<.05$). 특히 자신의 정서인식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F=8.18, p<.01$).

정서표현의 경우 자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8.68$)가 타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7.28$)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12.24, p<.01$).

감정이입의 경우 자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8.55$)가 타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7.3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6.22, p<.05$).

정서조절의 경우 자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14.66$)가 타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12.6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8.77, p<.01$). 즉 가정환경이 자율적일수록 자신의 정서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더 잘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활용의 경우 자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8.69$)가 타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bar{X}=6.20$)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F=11.81, p<.01$).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가정환경일수록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인식은 물론이고 정서표현과 감정이입 및 자,타인의 정서조절과 정서활용 능력이 더욱 발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서지능 형성에 알맞은 가정환경은 어떠한지 파악함으로써 정서지능과 관련지어 자녀의 성장, 발달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을 통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가정의 일반배경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정서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 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정의 일반배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부의 종교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모의 종교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모의 직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성취-비성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개방-폐쇄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친애-거부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자율-타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위의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주 시내 N초등학교 6학년 아동 27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작한 가정의 일반배경 검사지와 정원식(1990)의 가정환경 진단 검사지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정서지능 검사지를 사용했다. 회수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량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치의 검증은 $p < .05$, $p < .01$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가설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일반배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부의 종교 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소인 타인의 정서인식의 경우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5.12$, $p < .05$).

② 모의 종교 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③ 모의 직업 유무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소인 정서표현 능력의 경우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4.02$, $p < .05$).

④ 출생순위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소인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6.70$, $p < .01$).

둘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따른 아동의 정서지능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성취-비성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소인 정서인식($F=8.48$, $p < .01$), 감정이입($F=8.56$, $p < .01$), 정서조절 능력($F=12.40$, $p < .01$)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② 개방-폐쇄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③ 친애-거부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소인 자신의 정서인식($F=10.33, p<.01$), 타인의 정서인식($F=7.21, p<.01$) 정서표현($F=12.58, p<.01$), 감정이입($F=13.16, p<.01$), 자신의 정서조절($F=15.78, p<.01$), 타인의 정서조절($F=18.23, p<.01$), 정서활용 능력($F=9.62, p<.01$)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④ 자율-타율 환경에 따라 아동의 정서지능 하위요소인 자신의 정서인식($F=8.18, p<.01$), 정서표현($F=12.24, p<.01$), 감정이입($F=6.22, p<.05$), 자신의 정서조절($F=6.37, p<.05$), 타인의 정서조절($F=5.80, p<.05$), 정서활용 능력($F=11.81, p<.01$)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했던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자녀들의 타인의 정서인식능력이 높다.

둘째,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자녀들의 정서표현 능력이 높다.

셋째,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다.

넷째, 성취적인 가정환경에 있을 때가 비성취적인 환경에 있을 때보다 타인의 정서인식, 감정이입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다.

다섯째, 친애적인 가정환경에 있을 때가 거부적인 환경에 있을 때보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그리고 정서활용 능력이 높다.

여섯째, 자율적인 가정환경에 있을 때가 타율적인 환경에 있을 때보다 자신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자신과 타인의 정서조절 그리고 정서활용 능력이 높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동의 정서지능을 높여 행복한 삶,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보다 성취적이고 친애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제언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내용을 심화, 확대하여 성별, 학년별 그리고 가정의 구조변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셋째, 가정환경 뿐 아니라 학교환경, 사회환경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에 있어 가정 및 부모의 역할과 영향을 인식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민정(1990). 가정환경이 학동기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영일(198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인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경희(1997).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광웅(1973). 가정환경 요인과 학령 전 아동의 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숙자(1998). 아동의 가정환경과 감성지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언주(1997). 감성지능의 의미와 측정, 교육진흥.
- 김용선(1997). 감성지수와 이성, 민중출판사.
- 김유자(1996). 아동이 지각한 가정환경에 따른 정체감 유형과 창의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대학원.
- 김제한(1984). 가정환경 변인과 자녀의 지능 및 인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 김창대(1997). "정서지능의 계발과 활용", 「'97 청소년상담학술세미나」,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실.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곽윤정(1998). 정서지능의 발달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류광선(1999). 정서지능 향상교육프로그램이 정서지능과 도덕성 발달에 미

- 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류양숙(1995).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인지양식과 정서 대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문성일(1997). 미래교육은 감성교육이다, 교육연구.
- 문용린(1998). EQ가 높으면 성공이 보인다, 글이랑.
- 박세항(1998). 감성지능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대학원.
- 박정옥 외역(1997). 나의 지능, 상조사.
- 박정주(1998). 초등학생의 감성지능과 가정환경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조선대 교육대학원.
- 박주용(1997). “인지심리학에서 본 정서지능”, 『'97 동계연구세미나』, 한국심리학회.
- 심숙향(1998). 감성지능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 지역사회 개발대학원.
- 여광용 외(1993). 교육심리학, 양서원.
- 오광훈(1999).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제주대 교육대학원.
- 오계섭(1998). 정서지능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 지역사회개발대학원.
- 오영미(1997).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 교육대학원.
- 윤현석(1997). 감성지능과 창의성 관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군현(1997). EQ IQ 창의력, 여성사.
- 이규환(1978). 교육사회학, 서울: 배영사.

- 이근세(1996). 고등학생의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상대 교육대학원.
- 이달조, 김제한 공저(1988). 교육심리학, 학문사.
- 이명숙 외(1993). “저소득계층의 가족사회환경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정결손 대 부모불화”, 『학술발표 논문집』 '93 연차 학술대회, 한국심리학회.
- 이병래(1997). 부모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
- 이수정(1997). “인지적 평가 및 통제과정으로서의 정서지능”, 『학술발표논문집』 '97 연차 학술대회, 한국심리학회.
- 이옥형 외(1993). 교육심리학, 집문당.
- 이인숙(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교육대학원.
- 이종범 · 이석규 역(1994). 몸에 밴 어린시절, 카톨릭 교리 신학원.
- 이주일 · 민경환(1996). 정서지능 : 개념의 소개 및 연구전망, 서울대 심리학과.
- 이지웅(1993). 가정환경의 지위 및 과정변인과 학업성적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교육대학원.
- 이태열(1997). EQ 테스트, 도서출판 참나무.
- 이현민(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대학원.
- 이흥철(1995). “정서와 인지”, 『학술발표 논문집』 '95 연차 학술대회, 한국심리학회.
- 장현갑(1997). “정서지능 개관”, 『'97 동계 연구세미나』, 한국심리학회.
- 장혜정(1993). 가정환경 변인이 국민학교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 정원식의 2인(1993). 현대교육심리학, 교육출판사.
- 정종진(1996), 정서지능이란 무엇인가, 교육개발.
- 정재민(1999). 감성지수와 운동능력과의 관련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영권(1995). 가정환경이 자녀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 조은경(1997). “정서의 조절은 가능한가?”, 『'97 동계 연구세미나』, 한국심리학회.
- 조은미(1992).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 조한익(1998), 감성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차무언(1987).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과 정의적 투입 특성 및 학업성적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아대 교육대학원.
- 차종환(1997). IQ로 EQ가 휘청거린다, 오성출판사.
- _____ (1998). 21세기의 주인공 EQ, 오성출판사.
- 하대현(1997). “새로운 지능 개념으로서의 정서지능의 이해: 그 타당성과 한계”, 『'97 동계 연구세미나』, 한국심리학회.
-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문음사.
- 함지연(1998). 어머니의 언어적 벌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대학원
- 허영부(1996). 교육심리학, 학문사.
- 홍환규(1989). 가정환경변인과 아동의 도덕성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 교육대학원.
- 황정규(1964). 행동진단의 기술,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 황태호 역(1997). EQ형 인간이 성공한다, 중앙일보사.

- Baldwin, A. L., J. Kalhorn, and F. H. Breese(1948). *Patterns Parent Behavior Psychological Monograph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vidson, R.(1994). *Asymmetric Brain Function, Affective Styleand Psychopathology: The Role of Early Experience and Plastic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 Vol.6*, pp.741-58.
-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Gole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황태호 역(1997). *감성지능*, 서울: 비전코리아.
- Leslie, R. Brody & Judith A. Hall(1993). *Gender and Emotion,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 Guilford Press, pp.454-56.
- Mayer, J., & Salovey, P.(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45-267.
- Medinnus, G. R.(1967). *Readings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Home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Yang Sun Im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 Soo

This study is to provide a necessary material of emotional intelligence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by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home environment through analyzing how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home is related to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by understanding how home environment suitable for forming desirable emotional intelligence should be.

To attain this aim, some hypotheses were set as follows:

Hypothesis 1.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ll vary according to general home environment.

1-1.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ll vary according to their father's having a religion or no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0.

1-2.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ll vary according to their mother's having a religion or not.

1-3.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ll vary according to their mother's having a job or not.

1-4.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ll vary according to the sequence of their birth.

Hypothesis 2.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ll vary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home.

2-1.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ll vary according to fulfilling — unfulfilling environment.

2-2.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ll vary according to openness — closeness environment.

2-3.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ll vary according to affection — denial environment.

2-4.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will vary according to self-control — others-control environment.

To verify the above hypotheses, the questionnaires of surveying home environ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were collected from 270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Cheju Island. The data was processed with a statistic program SPSS.

Through the above procedur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achieved:

First, children's ability of recognizing other's emotion is higher when their father has a religion than when he does not.

Second, children's ability of expressing emotion is higher when their mother has a job than when she does not.

Third, children's ability of controlling other's emotion is high in the sequence of their first, second, and third birth.

Fourth, children's ability of recognizing other's emotion, sympathizing, and controlling other's emotion as well as one's emotion is higher when they grow up in the fulfilling home environment than when they grow up in the unfulfilling home environment.

Fifth, children's ability of recognizing other's emotion as well as one's emotion, expressing emotion, sympathizing, controlling other's emotion as well as one's emotion, and using emotion is higher when they grow up in the home environment of affection than when they grow up in the home environment of denial.

Sixth, children's ability of recognizing emotion, expressing emotion, sympathizing, controlling other's emotion as well as one's emotion, and using emotion is higher when they grow up in the self-controlling home environment than when they grow up in the others-controlling home environ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sychological environment of home should be more fulfilling, affective, and self-controlling in order to achieve happy life and harmonious human relationship through improvi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Based on the above results, some suggestions can be given as follows:

First, the development of a test measuring the multi-dimensional characters of emotional intelligence is required in the subsequent study.

Second, the study of the difference according to such variables as sexes, grades, and the structure should be executed expanding the content of this study.

Third, the study of exploring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hould be executed in the comprehensive areas of home environment, school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Fourth,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arents educating program which can recognize the role and effect of home and parent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need to be developed and executed.



부 록

- < 부록 1 > 가정환경 검사지 1
- < 부록 2 > 가정환경 검사지 2
- < 부록 3 > 정서지능 검사지

< 부록 1 >

< 가정환경 검사지 1 >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가정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학교성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을 잘 읽은 후에 한 문제도 빠짐없이 평소에 느낀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9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순임



※ 해당하는 곳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1. 부모의 유무	아버지 ① 계신다.() ② 안 계신다.()	어머니 ① 계신다.() ② 안 계신다.()
2. 부모의 종교	아버지 ① 있다.() ② 없다.()	어머니 ① 있다.() ② 없다.()
3. 어머니의 직업유무	① 있다.() ② 없다.()	
4. 형제간 수	① 나 혼자() ② 2명() ③ 3명이상()	
5. 나의 출생 0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막내()	

_____ 학교 _____ 학년 성별 (남, 여)

< 부록 2 >

< 가정환경 검사지 2 >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①	②	③
1. 우리집 식구들은 일에 골몰하여 식사를 늦게 하는 때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2.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힘든 일이나 운동은 다친다고 못하게 하신다.	①	②	③
3. 우리집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일에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솔직하게 비평할 수 있다.	①	②	③
4.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너무 어린애 다루듯 하신다.	①	②	③
5. 우리집 식구들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6.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소풍을 가서 숲 속에 혼자 가지 못하도록 하신다.	①	②	③
7. 내가 학교 공부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알고 있다.	①	②	③
8. 우리집 식구들은 아버지가 허락한 일만 해야 된다.	①	②	③

9.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훌륭한 사
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때
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10.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 몸에
조금만 열이 있어도 밖에 나가지 못
하게 하신다. ① ② ③
11. 우리 집에서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
를 지나치게 중요시한다. ① ② ③
12. 어머니와 아버지는 옷을 사주실 때
먼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하신다. ① ② ③
13. 우리 집안 식구는 나에게 “커서 훌
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14.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아이들이 앉아
있지 못하게 하신다. ① ② ③
15.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하고
싫어하는 일을 순순히 허락해 줄 때
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16. 우리 집에서는 남자도 여자처럼 부
역 일을 도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17. 우리 집 식구들은 항상 바쁘게 일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18.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두워지면 위험하다고 집 앞에 심부름도 안 시키신다. ① ② ③
19. 우리 집안 식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못 들은 채하는 일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20. 우리집 식구들은 옷을 살 때 자기가 먼저 입던 옷의 색깔과 같은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21.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할 곳도 운동삼아 걸어가라고 하시는 때가 많다. ① ② ③
22. 우리 집에서는 남의 집에 놀러 다니는 것을 엄격히 급한다. ① ② ③
23.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윗사람에게 말대꾸를 한다고 꾸중하는 일이 대단히 많다. ① ② ③
24. 우리 집 식구는 자기 일을 각자가 처리한다. ① ② ③
25.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해보라고 하시는 때가 많다. ① ② ③
26. 우리 집 식구들은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① ② ③
27. 나는 집안 식구들이 모두 밖에 나간 다음에 혼자 집을 지켜야 할 때가 가끔 있다. ① ② ③

28. 우리 집 식구는 한 번 놀러 갔던 곳은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29. 우리 집안 식구는 누가 더 잘 했는지를 가지고 내기를 잘 한다. ① ② ③
30.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남에게 집안 일을 이야기하면 야단치신다. ① ② ③
31.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라도 부모들이 반대하면 그것을 못 하고 만다. ① ② ③
32. 집안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아버지나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33.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학교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야단을 치신다. ① ② ③
34.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에 빠질까 걱정이 되어 내가 강에 수영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35. 우리 집안 식구들은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지 않고 간직해 두는 버릇이 있다. ① ② ③
36. 우리 집에서는 매일 꼭 같은 반찬을 해 먹는다. ① ② ③
37. 우리 집 식구들은 밤 늦게까지 전기불을 켜놓고 공부나 일을 하는 때가 많다. ① ② ③
38. 우리 집 식구들은 손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39. 우리집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일에
아이들이 참견하면 야단하신다. ① ② ③
40.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 바보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야단한다. ① ② ③
41. 우리 집안 식구는 일을 시작하면 아
무리 밤이 늦어도 끝까지 하는 버릇
이 있다. ① ② ③
42. 우리 집 식구들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든지 말해 버린다. ① ② ③
43. 우리 집안 식구는 모두 모여서 정답
게 이야기 하는 때가 많다. ① ② ③
44. 우리 집 식구는 어떤 일이든간에 지
금까지 해 오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45.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이든 시
킨다. ① ② ③
46.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혼자
어디를 가든지 별로 간섭하지 않는다. ① ② ③
47. 나는 내 문제를 가족들과 의논하지
않고 나 혼자 처리하는 때가 많다. ① ② ③
48.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마음대
로 물건을 사면 크게 야단치신다. ① ② ③

정서지능 검사지

※ 다음 중 자신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 하세요

1. 나는 조희때 선생님의 표정만 봐도,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 나는 목소리나 말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 평소에 마음에 드는 친구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4.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5. 나는 내가 화가 났는지, 짜증이 났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6. 나는 내가 슬픈지, 부끄러운지 잘 구별할 수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7. 나는 내가 싫증이 났는지, 불안한지 잘 구별할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8. 나는 내가 마음이 뿌듯한지, 신나는지 잘 구별할 수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9.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혼자 다니는 아이를 보면 불쌍하게 느껴진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10. 엄마가 나를 꼭 안아 주실 때, 나도 엄마를 안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1. 내 짝이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 는 축하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2. 내 친구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속으로는 그 친구를 위로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3. 몸이 약한 친구가 불쌍하고 걱정이 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14.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좋아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15. 엄마나 친구가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16. 친구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며, 나도 야단맞은 것 같이 기분이 나빠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17.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 친구가 도와주었을 때 나는 속으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8. 평소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보았을 때, 나는 속으로는 달려가서 인사하
 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19. 울면서 가는 아이를 보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진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20. 나는 육교나 지하철에서 거지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런 편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다.
21.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2. 나는 평소에 기분을 좋게 가지려고 애쓰는 편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3. 내가 열심히 한 숙제가 없어져서 속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① 속상하지만 빨리 잊고, 숙제를 다시 시작한다.
② 잃어버린 숙제가 자꾸 생각나서 다시 하기 싫어진다.

24.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엄마 친구분들이 집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 하고 계실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① 시끄러워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② 엄마 친구들 때문에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짜증이 난다.

25. 나는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6. 나는 행복한 순간의 느낌을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7.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8.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려고 애쓴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29. 친구와 내가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선생님이 나만 야단을 치실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 ① 나도 잘못을 했으므로 선생님의 야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 ② 나만 야단치시는 선생님이 밉고 화가 난다.

30. 시험을 망쳐서 기분이 나쁠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 ① 오늘 시험은 빨리 잊고 내일 볼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 ② 오늘 본 시험이 자꾸 떠올라서 공부가 잘 안된다.

31. 짝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일 때, 나는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2.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늘 웃으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3. 어머니(아버지)께서 화가 나셨을 때, 나는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4. 친구가 슬퍼 보일 때, 나는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노력한다.

- ① 항상 그렇다. ② 가끔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다.

35. 내가 싫어하는 친구와 짝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 ①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보려고 노력한다.
- ② 그 친구와는 놀지 않고 다른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36. 나에 대해 나쁜 이야기(욕이나 험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나요?

- ① 기분을 바꿀 수 있는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 ②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를 내거나 따진다.

37.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 졸려서 짜증이 날 때, 어떻게 하나요?

- 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한다.
- ② 지금 공부해도 잘 안 될 것이므로 그냥 쉬거나 잠을 잔다.

